

보도일시 (인터넷) 2023. 9. 20.(수) 11:00,
(지면) 2023. 9. 21.(목) 조간

배포 2023. 9. 20.(수) 06:00

9월 21일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제23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기념행사 열려

- 2023년 해양쓰레기 저감 우수 지자체 및 유공자도 시상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9월 21일(목)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함께하는 연안, 희망의 바다’를 주제로 ‘제23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국제 연안정화의 날(International Coastal Cleanup Day)’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전후로 100여 개 국가에서 약 50만 명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해양정화행사이다. 우리나라도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양보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2001년부터 행사를 개최해 왔다.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2023년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수상작과 해양폐기물 재활용 예술작품 전시를 시작으로, 올해 해양쓰레기 저감 우수 지자체와 유공자에 대한 시상*, 연안정화활동(대천해수욕장) 등 ‘연안정화의 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 최우수 지자체로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조사 및 지도를 제작한 ‘충청남도’와 해양쓰레기 실명제 마대사업을 실시한 ‘영광군’ 선정, 우수 지자체로 ‘전라북도’와 ‘경주시’ 선정

아울러,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행사일 전후로 각 지방해양수산청 등이 주관하는 지역 행사도 개최하여 전국에서 해양쓰레기 줄이기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 지구적 문제인 해양쓰레기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이번 행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해양수산부도 해양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올해 4월 발표한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해양쓰레기 발생량보다 수거량을 늘려 해양쓰레기 순발생량을 ‘0’보다 낮추는 것을 목표
(연 발생량 14.5만 톤) - (2024년 예상수거량 15.5만 톤) ⇒ 매년 현존량 1만 톤 저감

담당 부서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책임자	과 장	류선형 (044-200-5300)
		담당자	사무관	강예지 (044-200-5303)

참고 1

제23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 포스터 및 일정



□ 진행 순서

구 분			내 용	비 고
식전 행사	12:40~12:50	10'	▪ 해양수산부, 최우수지자체 홍보영상 상영	
	12:50~13:00	10'	▪ 해양폐기물 재활용 전시	
기념 식	13:00~13:07	7'	▪ 개회 선언 및 국민의례 / 내빈소개	진행자
	13:07~13:12	5'	▪ 환영사	충청남도
	13:12~13:17	5'	▪ 기념사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13:17~13:27	10'	▪ 축 사	보령시
	13:27~13:47	20'	▪ 우수지자체 및 유공자 표창	
	13:47~13:55	8'	▪ 재활용 예술작품 공모전 시상(1점) 및 기념촬영	
	13:55~14:05	10'	▪ VIP 기념 퍼포먼스 및 기념촬영	내빈 전체
	14:05~14:07	2'	▪ 폐회 선언	
부대 행사	14:07~15:30	83'	▪ 연안정화 활동 및 이벤트트럭 체험 * 팝업트럭(I♥SEACREAM)에서 정화활동 리워드(아이스크림, 친환경 기념품 등) 제공	대전 해수욕장 일대

※ 현장상황에 따라 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정 목적

-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국제 연안정화의 날”로 지정하여 전 세계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청소하는 행사 실시
- 전국 규모의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 행사를 통하여 해양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증진 및 국민 공감대 확산 도모

□ 추진 경과

- 1986년 미국 민간단체인 ‘오션 컨저번시(Ocean Conservancy)’가 텍사스 주에서 처음 시작한 연안정화 행사로 3회부터 캐나다 및 일본이 참여하면서 국제 행사로 발전함
- 현재 UNEP(유엔환경계획) 후원 하에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국제 연안정화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 중
 - 매년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50만여 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환경 보전 행사임
-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민간 환경단체 주도로 행사를 추진하다가 2014년부터 정부 주도로 행사 개최
 - * (‘10)경남 창원, (‘11)전남 해남, (‘12)인천 강화, (‘13)부산 다대포, (‘14)충남 보령, (‘15)부산 송도, (‘16)전남 완도, (‘17)강원 동해, (‘18)충남 태안, (‘19)전남 진도, (‘20)온라인 캠페인, (‘21) 충남 서천, (‘22) 부산(국제해양폐기물컨퍼런스)

□ 주요내용

- 전국 국제연안정화의 날 중앙 기념식 개최 및 지역행사 개최
 - 해양쓰레기 저감 우수 지자체 시상 등과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한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시민 참여 유도
 - 국제연안정화의날을 기념하여 각 지방청, 공단, 민간단체와 협업하여 전국단위 연안정화 행사 개최